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50
----------	------

발의연월일 : 2016. 9. 5.

발 의 자 : 노웅래 · 장정숙 · 이석현

김병관 · 황 희 · 김영진

유동수 · 최명길 · 이개호

안민석 의원(10인)

제안이유

2016. 9. 23. 시행되는 「저작권법」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별도로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설립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의 삭제 명령(제133조의2), 반복 침해자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 조치 권고(제133조의3) 등 이른바 ‘저작권 삼진아웃제’ 관련 업무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 이관하려고 함.

삼진아웃제 도입 당시 국회는 인터넷 이용자의 계정을 정지하거나 게시판 운영을 정지할 수 있는 등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권한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에 대한 국회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권리의 보유자와 그 이용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의 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위원 구성을 법정화하였음(제112조의2제2항).

그런데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대해서는 이러한 위원 구성에 대한 국회 통제 조항이 빠져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입법 결함은 바로 잡으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구성을 권리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과
이용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의 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의무화함
(안 제122조의6제2항).

나.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을 국회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2조의6제4항).

법률 제 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4083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2조의6제2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보유자와 그 이용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의 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회의 추천을 받는 자가 위원의 2분의 1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4083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p> <p>제122조의6(심의위원회의 구성)</p> <p>① (생 략)</p> <p>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u>구성한다.</u></p> <p>③ (생 략)</p> <p>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저작권, 문화산업 및 법률 등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한다. <u><후단 신설></u></p> <p>⑤ · ⑥ (생 략)</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4083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p> <p>제122조의6(심의위원회의 구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구성하되,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보유자와 그 이용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의 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u></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 ----- -----<u>. 이 경우 국회의 추천을 받는 자가 위원의 2분의 1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u></p> <p>⑤ · ⑥ (현행과 같음)</p>